2021년 10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호치민지사 KATI 수출뉴스

[베트남_호치민] 베트남 호치민시 봉쇄완화 후 유통 환경 변화

2021년 10월 13일, 호치민지사

□ 호치민시 코로나19 경제재개 3단계 로드맵 확정

- 응웬 반 넨(Nguyen Van Nen) 호치민시 당서기장은 9월 14일에 열린 제11기 당 집행위원회 제 8차 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재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함

  * 1단계: 10월1일~31일, 2단계: 11월1일~내년 1월15일, 3단계: 내년 1월15일 이후

- 1단계에서는 그린카드 및 음성판정확인서 소비자는 술집·노래방·바와 같은 비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그린카드 소지자가 헬스장 및 실내 활동 20인 이하로 참여할 수 있음. 3단계는 식당 등 필수 사업장에 그린카드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경제활동할 수 있으나 비필수사업장은 그린카드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함

  * 10.10일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7군 대상 식당영업 재개(전체 수용량의 30% 이하, 20명 내 이하 운영 등 제한)

  * 정부 방침 상시 변동으로 일부 내용 변동될 수 있음

□ 호치민 여행자거리 식자재 판매거리로 탈바꿈

- 대표적인 호치민시 여행자거리인 부이비엔(Bui Vien)은 1군 응우옌후에(Nguyen Hue)거리에 이어 주말에는 차량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있으며, 바 및 레스토랑 등이 밀집되어 있어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기 전까지는 밤낮으로 사람이 붐비는 거리였음

- 호치민시는 10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부 음식점들에게 테이크아웃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비필수사업장인 바(Bar) 및 노래방 등은 내년 1월 15일(3단계) 이후 손님들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거리에 있는 가게들이 과일가게, 정육점 및 식자재 판매점 등으로 탈바꿈함

바를 식자재 판매점으로 변경

텅빈 10월 호치민 여행자 거리

출처: vnexpress

□ 전통시장 투명 칸막이 설치 후 영업재개

- 10월 3일부로 벤탄(Bến Thành)시장, 안동(An Đông)시장 등의 호치민시 전통시장이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투명 칸막이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줄을 설치하였음

- 벤탄시장 내 등록된 가게 1,442개 중 현재 영업 재개를 신청한 가게는 150개, 10월 6일까지 문을 연 가게는 70개인 것으로 파악되며, 시장 관계자는 하루 고객이 약 200명으로 배달기사 및 주부들이 주 고객층이라고 전함

- 벤탄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 온 란(Loan)사장님에 따르면, 매년 설 명절을 제외하고 이렇게 문을 오래 닫은 적은 처음이며, 4개월만에 영업을 해서 좋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손님이 많지 않아 종류별로 2kg씩만 준비해서 판매를 한다고 전하였음

투명 칸막이 설치

투명 칸막이 사이로 거래

출처: vnexpress

□ 시사점

-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추었던 경제상황이 다시 재개되고 있으나 호치민 소비자들은 지난 4개월간의 봉쇄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여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임

-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았던 베트남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도 상승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자 수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현지인들의 식자재 구매가 온라인 및 식품안전·위생 상태가 보장된 현대식 유통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함

- 식자재 수출·유통업체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한국식품 이미지를 강조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조링크

1. 「Thống nhất lộ trình mở cửa nền kinh tế TPHCM theo 3 giai đoạn」,

saigondautu.com.vn, 2021.09.15
2. 「Quán bar, nhà hàng ở phố Tây Bùi Viện bán rau」, vnexpress.net, 2021.10.05
3. 「Nhiều Chợ truyền thống lắp vách ngăn mở cửa lại」, vnexpress.net, 2021.10.06.